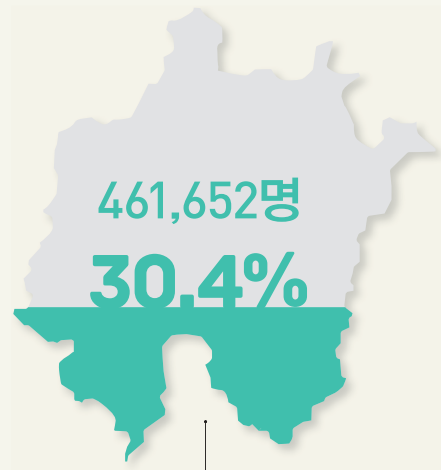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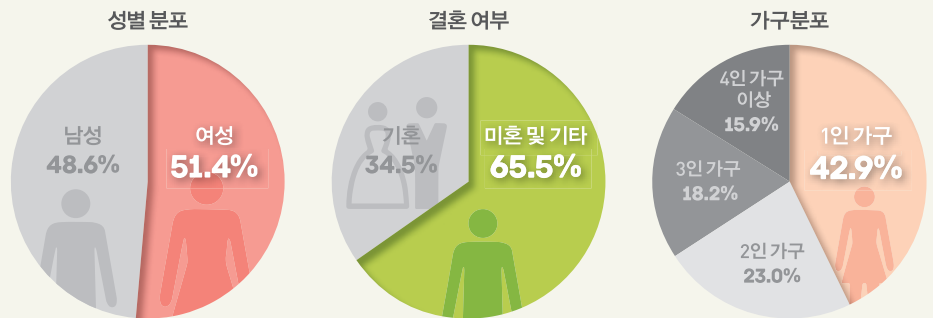
대전시 전체인구 대비 청년비율 30.4%

2015년 대전시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은 461,652명으로 대전시 인구의 30.4%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의 청년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4%, 남성 48.6%로 청년여성이 청년남성에 비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청년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 및 기타가 65.5%, 기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5%로 미혼 및 기타가 기혼에 비해 높았다. 대전시 청년의 가구 분포는 1인 가구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 2인 가구(23.0%), 3인 가구(18.2%), 4인 가구 이상(15.9%)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청년 성별·가구 분포 및 결혼 여부



대전시 청년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여 정책 수립, 정책결정 및 정책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부문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2016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는 소득·소비, 보건, 과학기술, 환경,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공공행정 및 공동체 등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전지역의 5,000개 표본가구 및 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본 사회조사의 청년 연령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명시한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청년 연령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명시한 19~39세를 기준으로 함.

*결혼여부의 기타는 사별, 이혼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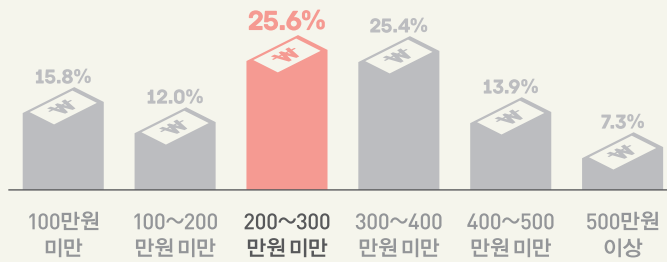
*출처 ① 대전 청년비율: 『2016 대전의 사회지표』 29p,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활용

② 대전 청년 성별·가구 분포 및 결혼 여부: 『2016 대전의 사회지표』 30p, 2016 대전시 사회조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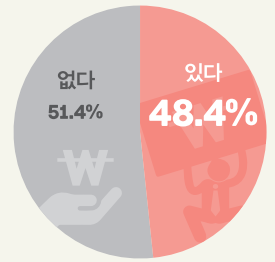
대전 청년 부채율 48.4%

대전시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200~300만원 미만(25.6%), 300~400만원 미만이 2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도 15.8%로 높은 편이며, 이어서 400~500만원 미만(13.9%), 100~200만원 미만(12.0%), 500만원 이상(7.3%)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청년의 부채율을 살펴보면, 48.4%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42.3%)에 비해 6.1%p 높은 수치이다.

대전시 청년 월평균 소득 수준



대전시 청년 부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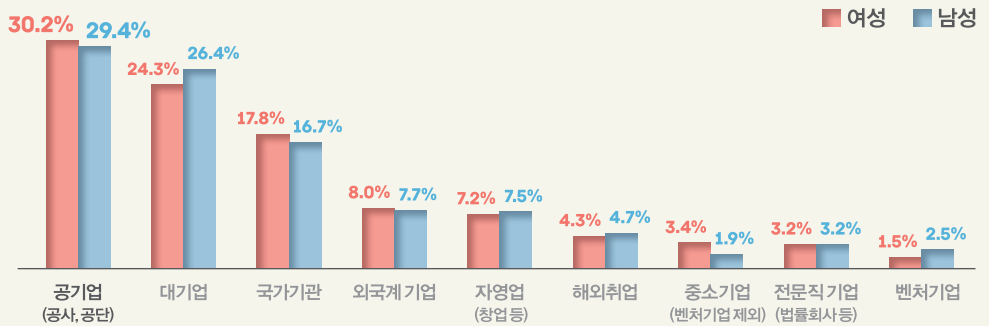


*조사대상 기준은 19~39세 대전청년 가구주에 한함.
*출처 | 대전광역시(2016), 『2016 대전의 사회지표』 33p, 2016 대전시 사회조사 활용

대전 청년이 가장 희망하는 직장은 공기업

대전의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유형을 보면, 청년여성은 공기업(30.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 대기업 24.3%, 국가기관 17.8%, 외국계 기업 8.0%, 자영업 7.2%, 해외취업 4.3%, 중소기업 3.4%, 전문직 기업 3.2%, 벤처기업 1.5% 순이었다. 청년남성도 공기업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기업(26.4%), 국가기관(16.7%), 외국계 기업(7.7%), 자영업(7.5%), 해외취업(4.7%), 전문직 기업(3.2%), 벤처기업(2.5%) 순이었으며, 중소기업이 1.9%로 가장 낮았다.

대전시 청년이 근무를 희망하는 직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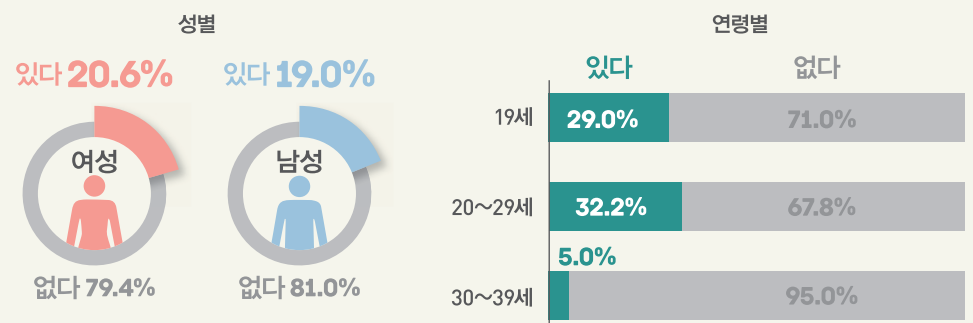


*출처 | 대전광역시(2016), 『2016 대전의 사회지표』 473p, 2016 대전시 사회조사 활용

대전 청년 5명 중 1명 취업을 위한 사교육 받아

대전시 청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취업준비를 위한 사교육 지출 여부를 묻는 문항에 청년 여성의 20.6%, 청년남성의 19.0%가 '취업 준비를 위해 받은 사교육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9세가 32.2%로 19세와 30대 청년층에 비해 취업준비를 위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19세가 29.0%로 높게 나타난 반면, 30~39세의 청년층에서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그쳤다.

대전시 청년 취업 사교육 지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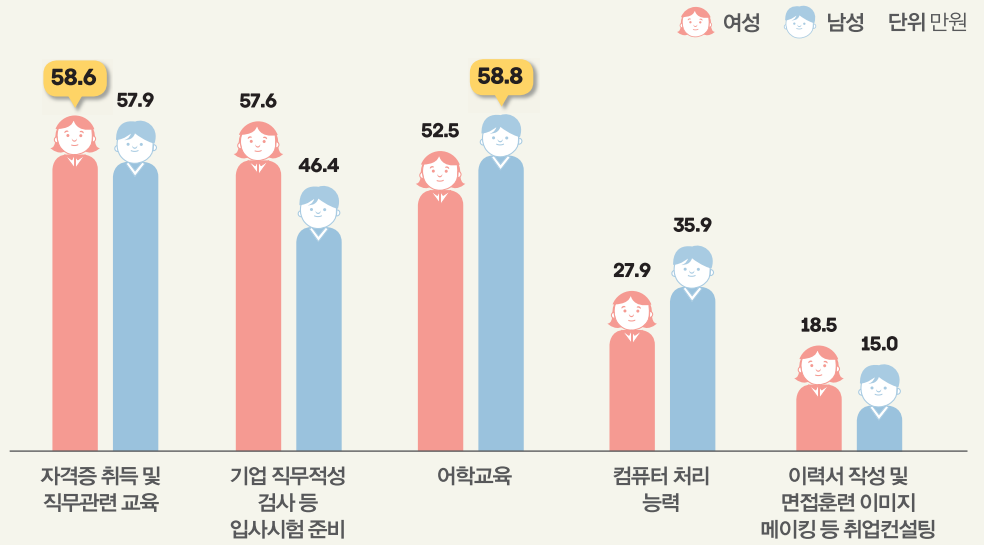


*취업 사교육은 지난 1년 동안 취업준비를 위해 받은 각종 교육(자격증 취득, 어학교육, 취업컨설팅 등)을 말함.
*출처 | 대전광역시(2016), 『2016 대전의 사회지표』 p474, 2016 대전시 사회조사 활용

대전 청년여성은 자격증 취득, 청년남성은 어학교육에 취업 사교육 비용 높아

대전시 청년층이 취업준비를 위해 받은 사교육 평균 비용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청년 여성의 자격증 취득 및 직무관련 교육비는 58.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입사 시험 준비(57.6만원), 어학교육(52.5만원), 컴퓨터 처리 능력(27.9만원), 취업컨설팅(18.5만원)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청년남성은 어학교육(58.8만원)에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자격증 취득 및 직무관련 교육 57.9만원, 입사시험 준비 46.4만원, 컴퓨터 처리 능력 35.9만원, 취업컨설팅 1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은 '자격증 취득 및 직무관련 교육'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청년남성은 '어학교육'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청년 분야별 취업 사교육 평균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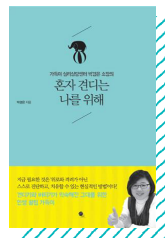
*기타 항목 분석 결과, 청년여성은 68,8만원으로 나왔으나 청년남성은 기타 취업 사교육 비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외함.
*출처 | 대전광역시(2016), 『2016 대전의 사회지표』

제9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2017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3일 가득이 심리상담 센터의 박경은 대표와 함께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 진단, 해소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7월 3일(월) 15시 30분

장소 | 대전시청 5층 화합실



혼자 견디는 나를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검사기법과 상담사례 및 솔루션이 담겨있다.

강연자·저자
박경은

- 가득이 심리상담센터 대표
- 평택대학교 상담학과 박사
- 한국지문심리상담학회 회장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위기SOS 상담사
- 저서 『혼자 견디는 나를 위해』, 『당신의 지문』

제10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젠더 관점으로 풀어보는 제4차 산업혁명

제10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이 7월 6일 '디지털 전환과 도시혁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7월 6일(목) 10시 30분

장소 |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

시간	내용
10:30 ~ 10:35	개회사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공동대표)
10:35 ~ 10:40	축사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
10:40 ~ 11:55	사회 윤정로 (KAIST 교수 ·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공동대표) 발표 김형주 (STEPI 연구위원) 토론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공동대표)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연구팀 팀장) 이혜경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차성란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11:55 ~ 12:00	종합정리 및 공지사항 안내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